

+ POSRI 보고서

아르헨티나, 포폴리즘과 이별

- 신정부 경제정책과 사업환경 변화

오영일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센터 (youngil@posri.re.kr)

[목 차]

1. 16년 만에 중도 우파 대통령 취임
2. 신경제정책은 이미 가동 중
3. 아르헨티나 사업 환경에 미칠 영향
4.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작년 11월 결선투표를 통해 좌파 페론주의를 청산하고 중도 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
 - 하지만 근소한 표차의 승리, 여소야대 상황 고려 시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시적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좌파 정권의 재등장 가능성도 있음
- (수출세 폐지)신임 대통령의 첫 경제 개혁 카드는 수출세 폐지 및 축소
 - 과도한 수출세 부담 경감 및 폐소화 평가 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외환 보유고를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
 - 옥수수, 밀 등 핵심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 폐지
 - 실제 최근 국제 곡물 시장은 아르헨티나의 콩, 옥수수 수출 증대를 2016년 국제 곡물 가격 변화의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
- (환율 개입 중단)대외경제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된 이중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이 반영된 암환율 수준으로 공식 환율을 올림(약 48% 평가절하)
 - 폐소화 가치 급락으로 물가, 임금 인상 등 간접비 상승 부담은 있지만 이중 환율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 경감은 현지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폐소화 가치 하락으로 아르헨티나 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입 규제 완화)'12년부터 시행한 사전수입승인제도(DJAI)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 수입 승인 처리되고 있음
 - 총 19,000여 개 HS 코드 품목 중 국내 산업 발전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700여 개 HS 코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사실상 수입 자유화
 - 수입 규제 완화로 경쟁력 있는 해외 원료 공급선 확보가 가능해지고 설비, 기자재 도입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
- (금융 환경 개선)해외 차입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금융권과의 관계 개선
 - 기술적 디폴트 문제 해결 위해 헤지 펀드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기로 함 (65억 달러 상환 제시)
 - 이미 미국 금융 기관으로부터 50억 달러 차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진출 글로벌 자동차사의 공격적 전략이 재부상하는 등 신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투자환경 개선은 확실해 보이나, 향후 정국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장치는 이전과 변함없이 확보해 두어야 함

1. 16년 만에 중도 우파 대통령 취임(15년12월10일)

□ 아르헨티나 역사상 페론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¹

-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주의 제안당(PRO) 대선 후보 마크리는 작년 11월22일 결선투표에서 페론주의 성향의 집권 여당 후보 다니엘 시올리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 이전 정권에서 장관까지 역임하다 전 대통령과 결별한 3위 마싸 후보의 지지표가 마크리 후보로 연결되며 1차 투표 결과를 뒤엎고 당선
- 하지만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거나 페론주의의 참패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함
 - 1차 투표에서 페론주의자 시올리 후보에게 뒤졌고 결선 투표에서 3%p 미만의 표차로 신승

〈표 1〉 대선 득표율

1차 투표(15.10.25)			2차 결선 투표(15.11.22)		
후보	득표율	비고	후보	득표율	비고
시올리	37.1%	결선	시올리	48.6%	탈락
마크리	34.2%	결선	마크리	51.4%	당선
마싸	21.4%	탈락			

자료: 언론 기사 종합

□ 토목 건설업(Socma Group)을 영위하던 부유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마크리 신임 대통령은 기업친화적 인물로 알려짐

- 1959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동남부에 위치한 농업 지역 탄달시에서 태어나 아르헨티나 카톨릭대(UCA)에서 토목공학 전공
 -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수학
- 20대에는 건설, 금융, 자동차 분야 사업에 관여했고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 축구 구단인 보카 주니어스의 구단주로 활약하며 승승장구
 - 아르헨티나에서 푸조와 피아트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벨 아르헨티나 경영

¹ 페론주의란 1940년대 집권한 페론 전대통령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경제, 사회 정책으로 외국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수입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보카 주니어스 구단주로서의 인기를 발판으로 2005년 공화주의 제안당을 창당, 2007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에 당선²
 - 시장 재직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 2천여 명을 해고하는 등 노동자 보호 성향이 강한 아르헨티나에서 소신에 따른 시장주의적 결정도 마다하지 않았음
- 대선 유세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 개혁 추진 및 전임 대통령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강조
 - 보호주의 무역정책 철폐, 불필요한 보조금 삭감, 환율 제도 안정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
 - 25명의 장관 중 9명을 기업 및 금융가 출신으로 구성하는 모습 등을 통해 시장경제 정책을 선호함을 분명히 함([별첨 2] 참고)

2. 신경제정책은 이미 가동 중

□ 경제 개혁의 첫 카드는 아르헨티나의 핵심 수출품인 농축산물 등에 대한 수출관세 폐지 및 축소

- 작년 12월 15일부터 옥수수(20%), 밀(23%), 쇠고기(15%), 공산품(5%) 및 탄산리튬(5%)에 대한 수출세 전면 폐지³
 - 대두 수출세는 35%에서 30%로 축소(이후 매년 5%씩 인하)
 - 이전 정부에서는 수출세를 각종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마크리 신임 대통령은 그러한 정책이 경제를 망치는 원인이라고 비판
- 과도한 수출세 부담 경감 및 폐소화 평가 절하를 통해 수출을 진작시켜 이를 통해 외환 보유고를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
 - 과도한 수출세 부담으로 시장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수출을 보류하는 악순환을 단절시키겠다는 의지
 - 현재 비축된 곡물 가치가 13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라, 이 중 상당 물량이 수출로 연결될 경우 외환보유고는 크게 개선될 전망⁴

² 2003년 출마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 선거에서는 낙선

³ <http://www.fscwire.com/newsrelease/orocobre-limited-tsxorl-changes-argentine-government-policy>

⁴ 옥수수, 대두 가격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2010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9.5%였음. 단 당시는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차이는 있음(국제 곡물가격 추이는 [별첨 3] 참조)

- 실제 최근 국제 곡물 시장은 아르헨티나의 콩, 옥수수 수출 증대를 2016년 국제 곡물 가격 변화의 주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
- '15년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액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약 180억 달러였고 곡물 생산량도 최저점을 기록

□ 대외경제활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이중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환율 체계 통합

- 작년 12월 17일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 이후 2개월여가 지난 2월 15일 현재 암환율과 공식 환율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
 - 12월 17일 폐소화 가치는 단기간에 약 35% 급락했지만 중앙은행은 더 이상 폐소화 매수와 달러 매도에 나서지 않음
 - 시장 개입 중단 후 2, 3주 동안은 공식 환율과 암환율 간 0.3페소 내외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도 점점 좁혀져 2월 8일을 전후로 공식환율과 암환율은 차이가 거의 없어짐

〈표 2〉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 전후 미 달러화 대비 폐소화 환율 변화

	2015년 12월 15일 (시장 개입 시기)	2016년 1월 7일 (시장 개입 중단 후 3주째 시기)	2016년 2월 15일 (시장 개입 중단 후 8주째 시기)
공식 환율	9.8	13.9	14.7
암 환율	14.3	14.2	14.7

자료: www.ambito.com

- 환율 하락에도 이중 환율에 따른 혼란이 사라져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
 - 대선 이전부터 현지 금융권에서는 대선 후 이중 환율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 경우 공식 환율이 암환율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음⁵
 - 수출 업체들은 폐소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사전수입승인제도(DJAI)는 작년 12월 17일 폐지되었고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 수입 승인 처리되고 있음⁶

⁵ 개인 환전도 일일 1회 500달러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허용되기 시작함

⁶ <http://www.iprofesional.com/notas/225061-Importaciones-al-final-sern-unos-1400-los-productos->

○ 아르헨티나 정부가 관리하는 19,000여 개 HS 코드 품목 중 1,700여 개 HS 코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사실상 수입이 자유화됨

- 사전수입승인제도(DJAI: Declaraci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n) 대신 SIMI(수입 모니터링 시스템)라는 새로운 수입 심의 제도가 2015년 12월 22일부터 가동 중
- 수입 관련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SIMI에 등록한 후 1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수입이 승인되는 방식(자동 수입 승인)⁷

○ 국내 산업 발전 및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1,700여 개 HS 코드 품목은 자동 수입 승인 비대상 품목(LNA - Licencias No Automáticas; Non-Automatic Import Licenses)으로 관리

- 대표적인 자동 수입 승인 비대상 품목은 완성차, 가전(완제품), 농기계, 화학 제품, 플라스틱, 섬유, 철강, 목재, 제지 등임

□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고 이에 따라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강화 및 미국 등 글로벌 금융권과의 관계 회복 추진

- 현재 보유 중인 31억 달러 상당의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기로 중국과 합의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서방 투자은행과 신용거래를 통해 향후 10년간 50억 달러 이상 외환보유액을 확충한다는 계획 발표⁸
- 기술적 디폴트 사태를 야기시킨 헤지 펀드와의 협상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월가 7개 금융권으로부터 50억 달러 차입에 합의⁹

- HSBC, JP Morgan Chase, Banco Santander에서 각 10억 달러씩, 도이체방크, 씨티그룹, UBS, 방코빌라오에서 각각 5억 달러씩 대출하는 신디론에 합의
- 아르헨티나 국채를 담보로 한 1년 만기 대출로 금리는 Libor+6.15% 수준

□ 공공 요금 등에 지원되던 각종 불필요한 보조금 삭감, 공공 기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도 잇따를 전망

○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시장경제라는 소신에 따라

protegidos-con-licencias-no-automticas

⁷ 수입 승인 서류 판정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류 사유 통지

⁸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대하는 초기 조달 금리는 7% 수준

⁹ 블룸버그 통신, 2016년1월30일

지난 10년간 동결되었던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인상 추진

- 서민층 반발 및 물가 상승 부담 감수

3. 아르헨티나 사업 환경에 미칠 영향

□ (환율 정책 변화)이중 환율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 소멸로 투자 및 사업 환경 대폭 개선

○ 공식 환율과 암환율 간의 갭에 따른 환차손 부담 제거

- 수출에 따른 수익은 공식 환율로 계산되는 반면, 인건비, 내수 조달 등 아르헨티나 현지 시장 가격은 암환율 시세로 움직이던 이중 환율 불합리성이 제거되어 기업 경영 부담 대폭 경감

○ 폐소화 가치 급락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간접비 상승 부담은 예상됨

- 연말 연초 진행된 각 기업체 임금 협상에서 30% 가량 임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휘발류 가격은 대선 후 이미 3차례 이상 인상

□ (수입 규제 완화)원료 공급선 다양화 및 각종 설비 및 기자재 도입 시 불필요한 손실이 줄어들 전망

○ 각종 설비 및 건설용 기자재 도입 용이

- 해외 설비 도입에 대해 까다로웠던 수입 통관 규정 완화 기대

○ 경쟁력 있는 원료 공급선 확보 및 안정적 조업 환경 유지에 도움

- 아직 100% 수입 개방은 아니지만 수입 규제 해지 대상 품목은 계속 확대될 전망

□ (투자금 회수 여건 개선)배당금, 과실송금, 원리금 상환 송금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

○ 변경된 외환 정책에 따르면 올 6월부터는 금액 한도 제한 없이 배당금 송금 가능

- 올 5월까지의 4백만 달러 내에서 송금 허용

○ 과실송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아직 없지만 신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 역시 점진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됨

□ (금융 환경 개선)기술적 디폴트를 야기한 미국 헤지 펀드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금융 조달 및 사업 신용 보강 관련 여건이 개선될 전망

- 마크리 신임 대통령은 '14년 여름 발생한 기술적 디폴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며, 지난 2월 초 아르헨티나 재무부는 미국 헤지펀드 채권단에게 65억 달러 상환을 제안한 상태¹⁰
 - 65억 달러는 미국 법원이 제안한 금액 약 87억 달러보다 25% 가량 적은 금액
 - 이 제안에 대해 다탁매니지먼트, 몽퇴르 파트너스 등 일부 채권단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엘리엇매니지먼트, 아울렐리우스 캐피털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
 - 단 현재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페론주의 성향의 이전 정권 세력들이 헤지 펀드와의 협상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를 위한 아르헨티나 국내 승인 절차는 여전히 낙관할 수 없음
- 외환 규제 개선, 경제 통계 조작 중단 지시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려는 메시지
 - 신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고 외환 사정만 개선된다면 기술적 디폴트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금융조달 비용은 현재보다 적어도 100bp 이상 낮아질 수 있음

4. 종합 및 시사점

□ 마크리 대통령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변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사업 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활발한 교류를 모색하며 전반적인 국가 리스크 경감 예상
 -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수입 및 외환 규제 완화 등 개혁 정책 추진
 - 기술적 디폴트 상황 해결 및 해외자본조달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 편입 노력 강화
- 아르헨티나 진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신정부의 수입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공격적 마케팅 전략 수립 중

¹⁰ 머니투데이, 2016년 2월 11일

- 메르세데스 벤츠는 현지에서 생산중인 고급 미니버스 VITO 위주의 시장 재공략 전략 수립 중
- 중국산 LIFAN을 수입하는 아르헨티나 LIFCAR사는 수입차 관세 인하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으로부터 LIFAN 직수입 확대와 함께 BRILLANCE 모델의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준비 중

○ 단, 신정부에서 기대한 경제정책 효과가 순차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개혁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며 국민들의 지지는 반발로 변할 수 있음

- 신정부 정책 기조의 지속 여부는 곡물 수출 확대, 해외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입, 국내 물가 안정 등에 달려 있음
-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이 수확되어 수출되는 5~7월 상황이 분수령

□ 아르헨티나 국내 정치 상황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좌파 세력의 종말로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이며, 투자시 향후 정국 변화에 대비한 안전 장치는 여전히 마련해둬야 함

○ 현재 상황은 페론주의의 몰락이라기 보다는 페론주의와 신자유주의(또는 느슨한 페론주의) 간의 새로운 정치 대립이 시작되는 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대통령 소속 우파 정당 PRO는 상원 의석의 28%, 하원 의석의 26%만 차지
- 페론주의 성향 정당들이 여전히 상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신정부가 추진할 각종 개혁 법안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 예상
- 전체 24개 주 중 15개 주의 주지사가 페론주의 성향

○ 현 대통령의 4년 임기 후 페론주의자들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충분

- 수십 년간 정부 보조금과 노동자 우선 정책에 익숙해져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 정서가 일시에 바뀌기는 쉽지 않음
- 신임 대통령과 전 정권 대선 후보 시울리와의 결선 투표 득표율 차이는 3%p 미만이었음

[별첨 1] 아르헨티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e)	2016(f)	2017(f)
GDP(10억 달러)	503.7	507.8	522.4	524.8	533.3	528.4	548.0
GDP성장률(%)	8.4	0.8	2.9	0.5	1.6	1.0	1.8
1인당 GDP(달러)	13,440	14,437	14,623	12,674	14,160	11,941	13,182
무역수지(십억 달러)	12.8	15.8	11.1	9.5	5.2	5.5	5.3
경상수지/GDP(%)	-0.7	-0.1	-0.7	-1.1	-1.5	-1.5	-1.5
재정수지/GDP(%)	-1.3	-2.0	-1.9	-2.5	-5.1	-4.7	-3.5
인플레이션	9.8	10.0	10.6	21.4	16.4	35.0	25.1
환율(ARS/USD)	4.1	4.6	5.5	8.1	9.4	15.0	16.9
외환보유(십억 달러)	43.2	39.9	28.1	32.0	27.0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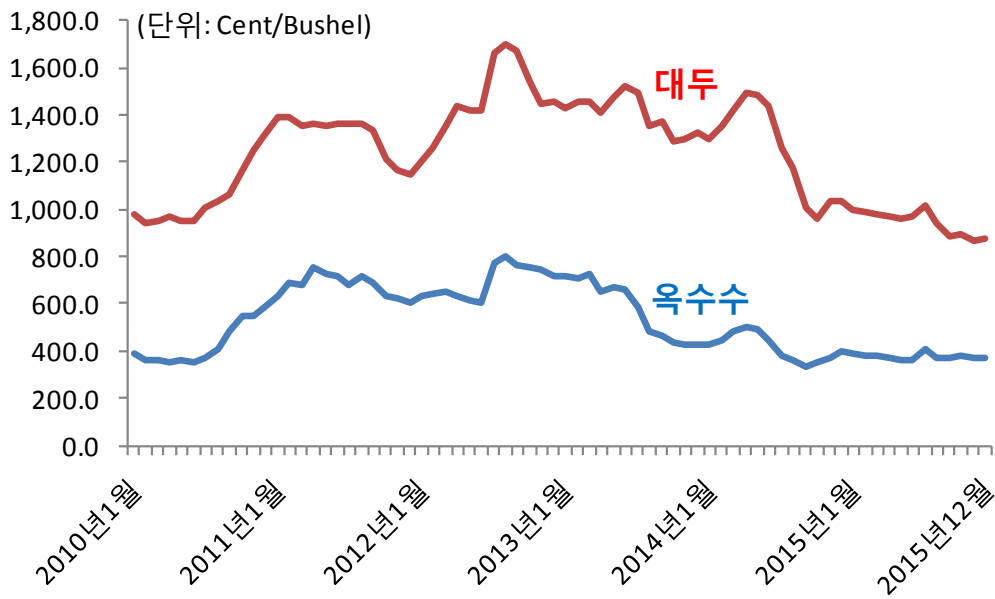
자료: IHS(Global Insight), Morgan Stanley

[별첨 2] 기업인 출신 신임 각료

부처	장관	출신
경제부	알폰소 프레트게이	JP Morgan
에너지부	후안 호세 아라구렌	Shell
산업부	프란시스코 카브레라	HSBC
내무부	로젤리오 프리제리오	Banco Ciudad
외무부	수잔나 말코라	IBM, 아르헨티나 텔레콤
현대화부	안드레스 이비라	마크리 그룹
문화부	파블로 아벨루토	출판사 랜덤하우스 몬다도리
미디어부	허난 롬바르디	관광업
중앙은행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	Banco Ciudad

자료: 매경, “마크리의 개혁실험”, 2015.12.9

[별첨 3] 대두, 옥수수 국제가격 추이



주: 대두 1 Bushel = 27.2kg, 옥수수 1 Bushel = 25.4kg

자료: Bloomberg

[참고자료]

[보고서]

Comparative World Overview, IHS, 2015.12.15

Argentina Strategy&Economics, Morgan Stanley, Nov. 2015

[홈페이지]

Bloomberg(www.bloomberg.com)

FSCwire(www.fscwire.com)

Ambito.com(www.ambito.com)

iProfessional(www.iprofessional.com)

[언론]

매경, “마크리의 개혁실험”, 2015.12.9

머니투데이, “아르헨티나, 미 디폴트 부채 65억 달러만 상환하겠다”, 2016년 2월 6일